



# 해 외 양 계 뉴 스

## EU

### 새로운 식육위생 검사제도 검토

EU의 도축장 식육위생 검사제도는 소위 "EU Fresh Meat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수의사가 도체마다 육안으로 검사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는 전통적인 것이다.

이 법규는 '64년에 제정된 이후로 몇 차례 개정되었지만 식육산업의 급속한 변화와 소비자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EU에서는 '93년 "식품위생에 관한 법령"에 의해 식품산업 전체적으로 HACCP의 원칙에 기초를 둔 위생관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식품가공부문은 이미 이를 도입한 EU법령이 정해져 있지만 도축부문은 아직 미비된 상태이다.

덴마크 등 일부 가맹국에서는 식품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농가와의 계약을 통해 가축의 병력 및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시도가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새로운 식육위생 검사제도에 있어도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검토되고 있다.

## 태국

### VIV ASIA 95 금년 11월 개최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오는 '95년 11월 15~18일 나흘간 "VIV ASIA 95"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퀸시링킷 국제대회장에서 열릴 본 박람회는 전시장 면적이 5천㎡로 '93년 대회때 보다 더 크고 다양하게 열리게 되는데 호주, 유럽, 미국, 영국 등 세

계의 많은 업체들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 박람회는 닭, 돼지, 소의 생산품을 이용한 축산 종합박람회로 유전적인 분야에서 부터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선보일 것

으로 보이는데 박람회 기간중 축산산업 경향과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도 열릴 예정이다.

## 파키스탄

### 닭너척수염(AE)으로 피해 속출

파키스탄은 최근 닭너척수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파키스탄 가금협회(PPA) 등 관련기관에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육용종계에서 주로 발생한 닭너척수염을 이슬라마바드와 무레지방에서 피해가 큰데 이 지역의 육용종계는 43만수가 사육되고 있는데 지난 1~2월 까지만 해도 이중 17만5천수가 폐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 오스트레일리아

### 닭고기 소비량 양고기 보다 많아

오스트레일리아의 켄베라에서 열린 농업경제회의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오스트레일리아의 닭고기 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해 2천년에는 1인당 32kg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소고기와 양고기를 즐겨 먹고 있는데 최근들어 닭고기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소비가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그 주요인으로 국민들의 식습관이 백색고기 쪽으로 바뀌고 있으며 더욱이 닭고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이를 부추기고 있음을 들었다.

이 보고서는 양고기의 경우 소고기와 닭고기의 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해 이들과 경쟁에서 뒤져 양고기의 소비는 급격히 감

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말레이시아

### 닭고기 가격 상승 예상

중국의 옥수수 생산부족 사태로 말레이시아 닭고기 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옥수수가 중국 현지 옥수수 흉작으로 8월부터 공급중단을 통보받아 옥수수 부족사태로 사료 값이 오르고 있어 불가피하게 닭고기 값이 상승하고 있는 처지에 놓였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옥수수 166만톤을 수입한 바 있다.

## 중국

### 양계업 진흥정책 적극 추진

중국의 축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양돈업이며 식육소비량의 약 80%는 돼지고기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곡물 등의 기본적인 식량 공급면에서 인간과 가축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합을 피하기 위해 최근 양돈은 현상유지 정도로 억제하고, 반대로 비교적 사료효율이 높은 양계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닭고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면제와 저리융자, 사료의 우선할당 등의 메리트를 제공하는 한편, 육종 개량이나 사육관리분야 등에서 기술개발에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양계]